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7월 3일(주일) 제1400호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 '킹덤 파이오니어' 집회.

“예배의 열정, 선교의 헌신”

7월 3일 오후 1시 30분 장충체육관 ... 유기성, 이재훈 목사 메시지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 마지막 집회 장소는 장충체육관이다. 7월 3일(일) 오후 1시 30분 장충체육관에 예배의 부흥, 선교의 부흥을 소망하는 청년 5,000여 명이 집결한다. 마지막 집회에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재훈 담임목사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장충체육관은 '서울 중구 동호로 241'번지에 있다. 행

사장에 주차할 수 없기에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지난 6월 30일(목) 막 올라 7월 2일(토)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청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개척자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서는 6월 30일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성령을 받으라', 7월 1일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예배를 회복하라', 7월 2일 주누가 선교사(GO선교회) '열방을 품으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남상민 형제(허브대학부)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고, 양은영

자매(여호수아청년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다. 홍단비 자매(여호수아청년부)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예배의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소망했고, 박극요 형제(W청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 여름사역 본격 시작!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캠퍼스별

2022 차세대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쁨, 꿈땅 어드벤처는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캠퍼스별로 진행된다. 올해 어드벤처에서는 예쁨 '뽀뽀뽀, 소금 되신 예수님', '반짝반짝, 빛 되신 예수님', '으쌔으쌔, 섬김의 예수님'을 주제로, 꿈땅(유년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퀴즈와 놀이 활동 등을 한다. 꿈땅

(초등부, 소년부)은 덕평수련원, 치악산 명성수양관, 너리굴문화마을,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등지에서 부서별로 캠프를 진행한다.

파워웨이브 여름캠프는 '나는 다르게 산다'(마 5:13-14)를 주제로 막 오른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IYC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 서울장신대학교, 흥원연수원 등지에서 캠프를 진행한다. 캠퍼스별로 일정에 맞춰 차세대 어드벤처와 여름캠프를 한다.

/ 홍하영 기자

2022 온누리 국내외 여름 아웃리치

국내 126개 팀, 2,069명, 해외 52개 팀, 446명

2022년 온누리 국내외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국내 126개 팀, 2,069명, 해외 52개 팀, 446명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열방으로 떠난다(7월 1일 기준). 올해 여름 아웃리치 포문은 7월 4일 시작되는 허브대학부 몽골 아웃리치가 연다.

올해 온누리 여름 아웃리치는 선교사들과 지역교회 목회자 위로가 목적이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선교지와 지역교회를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만으로도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올해 여름 아웃리치 주요 사역은 선교사 위로, 예배 지원, 어린이 사역 등이다.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온누리교회 안전분과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관련기사 12면). 특히 아웃리치팀들은 현장 선교사와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고, 무리한 사역보다 선교사들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편 CGNTV에서는 2022 여름 아웃리치 기간에 국내외의 선교사, 선교 기관, 무목교회에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선교지에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를 후원하고 싶은 아웃리치팀은 8월 21일까지 CGNTV 후원팀(02-796-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故 김영길 장로 소천 3주기 추모예배

故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초대총장) 소천 3주기 추모예배를 지난 6월 30일(목)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에서 드렸다. 추모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한동대학교 이사장), 김영애 권사(유가족 대표), 최도성 장로(한동대학교 총장), 정과중 장로, 한동대학교 임직원 및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애 권사는 "천국에서도 한동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故 김영길 총장님처럼 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 김영선 기자

맛있는 말씀 해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기 8:7)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성경 말씀을 액자에 걸어놓은 가게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구절이다. 문장 자체의 내용만 보면 참 좋은 말씀이다. 지금 시작은 비록 보잘 것없고 작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크게 번창할 거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개업선물로 이 말씀이 적힌 액자가 인기가 많다. 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안다면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욥기서는 의인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다가 점차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위로한다. 그러나 한결갈

이 욥의 고난은 그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는 당시 유대교적 인과응보의 사상을 설파하며 욥을 굴복시키고자 한다. 욥기서 1장에서 욥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사탄의 시험이다. 사탄의 주장에 따르면 욥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겪는 욥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 그의 잘못을 찾아내 지적하는데 급급하다. 그들은 당시의 인과응보론적 사상과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흑백논리로 욥의 고난을 해석한다. 욥기서 8장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의 1차 변론을 기록하는 장면이다. 엘리바스가 한차례 욥을 향해 훈계하고 난 다음,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편협한 인과응보적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욥을 교훈한다.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힘들

어하는 욥에게 빌닷이 분노의 감정을 섞어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욥 8:4).

자녀를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지금이라도 욥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삶을 평안하게 해 주실 거라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내뱉는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은 욥의 고난을 진정으로 아파하고 위로하기보다 판단과 정죄로 포장된 무서운 독설적 표현이다. 욥과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 고난이 닥쳤으니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다시 크게 흥통하게 되리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세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욥기서 4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욥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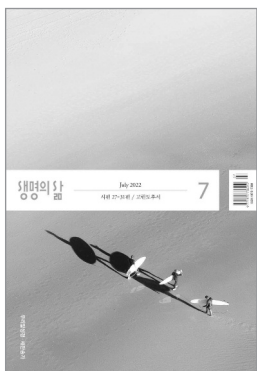
성경 말씀은 항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화자가 얼마나 좋은 의도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는 이 구절을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 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고난 중에 만나는 ‘위로의 하나님’



7월 4일~10일(시편 30:1~31:24; 고린도후서 1:1~2:17)

목상포인트

1: 시편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낙심될 때 위로와 소망을

준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힘겨운 상황을 토해낸다. 하나님 앞에서 쓰디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애통, 상함과 분노를 모두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으신다. 시편 30~31편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목상하자.

30편: 시편 기자는 주님을 높여 찬양한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회개의 눈물로 저녁을 보내는 사람은 은총의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31편: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가 엄마 품으로 달려가듯,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신한다. 그는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께 원수들이 쳐 놓은 그물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 근심으로 인해 몸과 영혼이 쇠하고, 대적에게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친구들도 그를 피하면

서 잊힌 존재가 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암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목상포인트 2: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전적 메시지가 강한 서신이다. 바울은 죽음과도 같은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전한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이유를 변호하며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설득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보자.

▶바울이 고린도교회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한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겪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견딜 수 있었다.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리라 확신한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고린도와 마케도냐를 거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에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이 일정을 변경했다. 고린도교회에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 바울이 계획대로 방문을 추진한다면 그 사람을 치리해야 했고, 그 일로 성도들이 근심할 수 있었다. 이에 바울은 방문 계획을 변경해 그가 먼저 회개하도록 하고, 신뢰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교제하기를 원한다.

목상포인트 3: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된다. 복음을 받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제자의 삶을 목상하자.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자는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거룩한 섬김에는 거룩한 향기가 따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훈탁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는 진실한 사도임을 변론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번 주간 회개의 눈물로 은총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수시로 선포하자. ▶제자의 삶에는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가 넘친다. 내가 고난받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받는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자.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다.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분쟁의 열정을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바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로 다짐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예나를 위해서!

저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22개월째 투병 중인 26세 예나의 부모입니다. 발병 이후 처음 3개월여 동안 서울성모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무척 힘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두 차례 항암치료를 했습니다. 첫째 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이식에 성공했고, 완치 희망을 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첫돌 축하 파티의 기쁨이 너무 짧았습니다. 최근 예나가 두통이 심해지면서 다시 입원했습니다. 없어졌던 암이 머리에 재발해 뇌압이 높아지면서 머리가 깨질듯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으로 여태까지 보이던 삶에 대한 의지가 무너지고,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예나의 모습에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예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사선치료가 잘 들어 머리에 암세포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예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예나의 모든 장기가 약해지지 않고 흠을 털고 일어나 걸어 다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혈액암이 모두 없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예나를 간호하면서 지치지 않고, 서로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박인기 집사(수원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저편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이지만, 단절이 목적은 아닙니다. 연결이 목적입니다. 이 시간과 영원을 연결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굴복할 때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통과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죄인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갑자기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할 수 없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저항합니다. 인간과 죄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철학과 사상을 주장하면서 타락과 부패를 자루 있어버립니다. 죄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 죄와 구원에 관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종류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입니다. 또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해 인간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영화롭게 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와 어둠이 없고, 반역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눈물과 슬픔이 전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네 가지 반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와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스스로 의롭고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죄 가운데 나타났음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부정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둘째, 남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스스로 과신하며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을 모두 드러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하고, 죄인이라 불리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과신에 빠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인은 유대인을 일컫습니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종교적 의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여 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제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절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을 의롭게 하고, 자기 민족을 우상화하고, 민족주의에 빠지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회에서는 복음의 길과 삶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카

종교인의 반발

로마서 3:1~8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테고리로 집어넣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복음의 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빠졌던 자기 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울타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더 엄격한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자들을 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기보다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으면서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여 준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인이 이와 같은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동일한 부류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종교화된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어떻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어떻게 반발하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종교화 한 유대인들에게 전한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발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리새인 바울과 그리스도인 바울의 논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 종교인, 바리새인으로서 던지는 질문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그것을 방어하는 논쟁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적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진리에 어떻게 변명하고 대항하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할례를 행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참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바울도 그들의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반론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

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1~2절).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이 재정의되어야 하고, 할례도 재정의되어야 한다면 유대 사람에게 무슨 혜택과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주신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맡았다는 것은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유대인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역지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반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책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3~4절).

두 번째 반발은 결국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과 율법을 주시고, 여러 제도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반발입니다.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이 그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 줘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적인 타락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친밀하고, 전지전능한 표적과 기사와 약속과 메시아를 주셨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13면에 계속)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행복의 원천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이 구슬땀 흘리는 이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누구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의미와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고 깊다. 교회와 크리스천들도 돈 문제와 관련한 고민에서 예외가 없다.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힌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써야 하는지 그 모범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힘든 일을 돕는 사역팀이 있다.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이다. 그들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경적 재정관이 확장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오종규 팀장, 황수현 자매, 이진수 형제)을 만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요즘 사람들의 지갑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과 물가 상승을 잡으려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영향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를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 금액이 6조4000억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그 원인을 카드 대금 갚을 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대법원이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가 끝나면 도산하는 채무자가 급증할 거라고 경고했다. 교회라고 사정이 다를까? 결코 아니다. 여러 교회가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는 A 목사는 “얼마전 어렵게 교회 외벽 보수를 시작했는데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급등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자!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 오종규 팀장(여호수아청년부)은 교회와 성도들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누구나 돈의 노예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오종규 팀장은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부채탈출 119’ 사역에 동참하면서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 합류했다.

“저는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부채탈출 119’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적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모두 돈의 노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천들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 재정관이 확장되는 비전을 이루는 경제정의팀 성도들(오종규 팀장, 황수현 자매, 이진수 형제).

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종규 팀장의 말처럼 올바른 돈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 오종규 팀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가 궁핍하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빌 4:11~13).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하는 삶은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인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돈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책 살 돈이 없을 만큼 가난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때가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자금이 생기면서 오히려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하게 되거나 혹은 돈이 많아도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성공과 바른 소비

황수현 자매(강남E공동체)는 몇 안 되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주부다. 자금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다. 황수현 자매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은 성경적 재정관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필리핀 빈민촌으로 1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빈민촌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정말 다르게 쓸 수 있고,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벌고, 모으고, 쓰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적 재정관에 눈을 뜬 황수현 자매는 돈에 관한 공부도 부지런히 했다. 돈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벌고, 모으고, 쓸 수 있을지 생각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황수현 자매는 바른 성공이 무엇인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성공의 척도가 있겠지만, 저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교회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었다면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황수현 자매와 경제정의팀에서는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를 점검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네 가지 소비가 있습니다. ‘쓰면 없어지는 소비’, ‘써도 남는 게 있는 소비’, ‘꼭 필요해서 쓰는 소비’, ‘잠깐의 욕구를 위한 소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꼭 필요한 소비’와 ‘써도 남는 게 있는 소비’를 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치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 습관을 점검해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자”

이진수 형제(SNS청년부)는 ‘돈은 나를 제외한 남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은 사람,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나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진수 형제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재정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경제정의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진수 형제는 경제정의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듣고, 독서 토론을 하면서 비로소 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돈을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의 창고에 쌓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하나님의 일에 써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후원을 꾸준히 하시던 어르신인데 본인은 2만 원짜리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 어르신께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권력이 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재정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쓸 줄 아는 교회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을 것이다!

양재 러빙핸즈팀의 줍고, 쓸고, 닦는 예배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한다. 인생에는 반반 선택지가 없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야 한다.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선택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면에서는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와 사역팀을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은 ‘양재 러빙핸즈팀’이다. 러빙핸즈는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청소봉사팀이다. 주일 예배당과 화장실, 교회 로비와 복도 등지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쓸고, 닦는 예배를 드린다. 러빙핸즈팀이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보라색 앞치마 한가운데 박힌 분홍색 하트 2개가 앙증맞고 예쁘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보라색 앞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양재 러빙핸즈 봉사자들이다. 러빙핸즈는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청소봉사팀이다. 교회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주일 오전이면 교회 곳곳에서 보라색 앞치마를 입고 쓰레기봉투와 소독제를 든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6월 19일(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러빙핸즈 사무실에서 만난 김혜정 권사(푸른누리공동체)의 손길이 분주하다. 김 권사는 러빙핸즈 봉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부지런히 청소 도구와 소독용품을 테이블에 세팅하고 있었다. 스퀴즈(유리나 타일 바닥에 흐른 물기를 제거하는 청소용품), 비닐장갑, 세정티슈, 방향제, 소독제 스프레이가 테이블에 짝 깔려 있었다. 러빙핸즈팀의 상징인 보라색 앞치마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 20분, 일요일 2부 예배가 끝나갈 즈음 러빙핸즈 봉사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보라색 앞치마부터 챙겨 입었다. 손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앞치마 주머니에 소독제와 방향제, 세정티슈, 스퀴즈를 하나씩 꽂아 넣었다. 대형 쓰레기봉투까지 챙긴 봉사자들의 표정에서 특수임무를 앞둔 특공대원들의 비장함과 단단함이 엿보였다.

이강현 목사(양재 러빙핸즈 담당)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러빙핸즈 대원들이 일사불란 교회 곳곳으로 흩어졌다. 이날 봉사 인원은 10여 명



양재 러빙핸즈팀원들이 교회 청소 봉사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좌), 화장실 거울을 닦는 러빙핸즈 봉사자들(우).



이었다. 이 소수의 인원이 무려 화장실 8군데(사랑홀 3층, 화평홀 양쪽 화장실 2개, 드림홀 앞 주차장 쪽 화장실, JDS홀 입구에 있는 화장실, 원형카페 광장 쪽 화장실, 자모실과 경찬홀 화장실)와 사랑홀 1~3층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줍고 쓸고 닦는다.

인원이 적다고 청소를 허투루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장실에서는 스퀴즈로 거울과 세면대에 떨어진 물기를 깨끗이 제거하고, 변기 의자와 커버는 세정티슈로 닦고 또 닦는다. 혹시나 화장실 특유의 쿼퀴한 냄새가 날까 향긋한 방향제를 뿌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사랑홀 청소도 마찬가지다. 매의 눈으로 사랑홀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좌석을 살핀다. 바닥에 떨어진 분실물과 휴지 등을 수거하고, 의자 양쪽에 놓인 손소독제도 가지런히 정리한다. 청소하고 러빙핸즈 사무실로 돌아와 한숨 돌리면 일요일 3부 예배가 끝난다. 러빙핸즈 봉사자들이 또 교회 곳곳을 청소하러 출동한다.

교회를 내 집처럼 깨끗하게! 하윤경 권사와 신호식 팀장의 소망

하윤경 권사(송파B공동체)가 양재 러빙핸즈 봉사를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약 1년 전쯤이다. 당시 러빙핸즈 담당 목사가 하윤경 권사에게 러빙핸즈 봉사를 제안했다.

“목사님께서 제가 러빙핸즈에서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하윤경 권사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 있는 수많은 의자를 닦고, 예배당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사소해 보이는 러빙핸즈 봉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졌다.

“허드렛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쓸고 닦았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가 셧다운 되면서 모든 봉사 활동이 멈췄기 때문이다. 그 좋아하는 러빙핸즈 봉사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게 낙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빨리 예배와 러빙핸즈 봉사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윤경 권사의 기다림이 드디어 응답됐다. 지난 2월부터 러빙핸즈 봉사가 재개됐다.

“지난 2년 동안 러빙핸즈 봉사를 하지 못하면서 이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요즘 러빙핸즈 봉사자들이 다시 한 명 한 명 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윤경 권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청소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봉사입니다. 교회 구석 구석에 섬김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청소도 귀한 예배입니다. 러빙핸즈팀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식 팀장(양재 러빙핸즈, 푸른누리공동체)은 주일이면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러빙핸즈 봉사자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회 곳곳에 있는 남자 화장실과 사랑홀 3층까지 돌고 나면 진이 빠진다.

“러빙핸즈팀이 청소하는 화장실 말고도 교회에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아

직 부족해서 다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봉사를 함께해줄 동역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빙핸즈팀원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가끔 당황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보다 몇배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물건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현금이 든 현금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여러 번 주웠습니다. 또 잘 막히는 요주의 변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한다고 방향제를 뿌리면 왜 그런 걸 뿌리느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당황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수고한다고,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격려해주시는 성도님들이 훨씬 많습니다(웃음). 그분들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러빙핸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빙핸즈팀은 교회 안 청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미화도 한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 안 청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미화를 함께 했습니다. 교회 주변 주택가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근처 공원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들과 눈 마주치며 인사하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주일만큼이라도 교회 오가는 길이 깨끗하면 좋겠고, 교회 덕분에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봉사자가 부족해서 교회 주변 청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빙핸즈에 더 많은 봉사자가 모여서 교회 내 청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청소까지 하면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러빙핸즈 봉사자 모집
문의: 02-570-7447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사명 '혐오사회에 사랑심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라!

젠더갈등 원인 '인간의 죄성', 해결책 '창조질서 회복'

갈등과 다툼, 분열이 만연하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 '혐오의 시대'라 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혐오(嫌惡)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다른 세대와 성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의 이웃을 품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를 잣대로 세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 잣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혐오 대상이다. '젠더혐오'도 그렇다. 서로 다른 성별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누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저울질하며 서로를 헐뜯는다. 사회 문제로까지 번진 젠더갈등과 젠더혐오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은경 권사(두란노어머니학교)에게 그 해답을 물었다.

/ 편집자 주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요즘 젠더갈등과 젠더혐오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고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기 바빠야 할 2030 남녀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비

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젠더갈등과 젠더혐오의 해결책을 찾기 전에 그 시작과 이유를 아는 것이 좋겠다. 젠더갈등과 젠더혐오의 시작에 페미니즘(feminism,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이 있다. 많은 여성이 페미니즘에 호의적이다. 꼭 필요한 운동이자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가치관이라 여긴다.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여성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다. '성(sex, gender, Sexuality)'으로부터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다.

남아선호사상,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온 한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 우리 세대만 해도 여성이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착취당하기 일쑤였다. 나만 하더라도 아버지께 "쓸데없는 가시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자랐다. 다행히 우리 집은 어머니께서 딸들도 공부를 시켜주셨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러 집안 살림에 보태거나 오빠와 남동생 뒷바라지를 했다. "첫딸은 살림 밀전"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폄하되었는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죄성...

남성들 대부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공감한다. 그런데 최근 2030세대 젊은 남성들은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전과 달리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 중 하나다. 젊은 남성들은 교사 등 특정 직종 취업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 비율이 전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초등학교는 20%를 겨우 웃도는 정도다. 이 때문에 남성 할당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성들은 또 어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에 반발한다. 유리천장은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실제 지난 3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집계했는데, 한국이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8.7%로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8%다. 이러한 사회현상이 지속하면서 남녀의 관계가 어느 순간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어느 편에 혜택을 줘야 마땅한지 저울질하기 바쁘다. 조금의 이해와 양보도 없이 서로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는 지경이다. 내가 쥐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을 빚고, 결국 서로를 미워한다.

남녀가 서로를 미워하는 젠더갈등과 젠더혐오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죄성'이다. 인간의

죄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만들어낸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性)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고, 성별로 팀을 맺어 상대를 재단하게 만든다.

돕는 배필로 창조된 남과 여

젠더갈등과 젠더혐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느 한 성별에 권력을 주신 적이 없다. 서로를 평등하게 만들어졌고, 상호적인 관계로 창조하셨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도록 관계를 형성해두셨다.

많은 여성이 기독교를 "가부장적인 종교"라고 말한다. 그 주장의 근거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22)는 말씀을 인용한다. 나 역시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이 말씀이 불편했다. 하나님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지, 존경할 부분이 없는 남편을 왜 존경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성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 있다.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 봐야 이해가 쉽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25)고 하셨다.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셨고, 남편

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먼저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남자들은 인정받을 때, 여자들은 사랑받을 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야 남을 돌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내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남편이 위에 있는 존재이기에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남편을 존중하라는 뜻은 결국 여성이 행복해지는 방법, 즉 남편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각자 다른 남녀의 역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서 평등한 관계로 창조하셨지만, 분명 차이를 두셨다. 신체적, 정서적, 심지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까지 차이가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우월하다. 키가 더 크고, 근육량도 많고, 힘이 세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는 죽도록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하셨다(창 3:16-17).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남자에게 신체적인 능력을,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 여자에게 정서적인 능력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에 따른 역할을 이해해야 진정한 평등을 얻을 수 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로 글을 마치고 싶다.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를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깨닫고,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결혼은 축복이다

“저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나 교회에서는 결혼이 필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비혼주의는 성경을 거스르는 건가요?”

‘교회는 왜 결혼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는 성경을 거스르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주셨다. 청년들은 결혼하기 싫어할까? 그렇지 않다. 이 질문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바라보는 결혼은 어떤 것일까?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조건일 것이다. 세상은 결혼을 조건화시켰다.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조건이 맞아야 잘 산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조건이 맞으면 잘 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청년들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을 생각하는 관점이 모두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물질과 조건으로 결혼을 말하지 않는다. 결혼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성경은 결혼을 축복이라 말한다.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삶의 태도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이다.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본이 된다. 결혼의 조건에 집중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성실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시편 128편 1~6절 말씀을 보면 결혼과 가정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복’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복이기에 말씀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신다.

성경 인물 중에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결혼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결혼이 모든 인생의 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 삶의 가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지’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기준을 내려놓으

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보인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내려놓으면 믿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만남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청년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믿음의 가정을 사모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단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한다. 결혼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한다.



이우람 목사
(Pole2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인내 그리고 용서

결혼 전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신앙과 인격, 경제적인 부분들이다. 경제적인 부분은 큰 몫을 차지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결혼을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선택을 하곤 한다. 그런데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결혼 전 잘 준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인격적인 부분’이다. 개인이 갖춘 인격적 성숙도는 결혼 생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인격적인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연습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면이 깎이는 시간을 보낸다. 내면이 깎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잘 처리했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에 올라선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깎이는 시간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상처나 깊은 심리적 위축으로 남게 된다. 깎이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면 자신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

특히, 많은 인간관계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어쩌면 성장을 독려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하게 된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나와 같지 않고, 내가 기대한 것을 그도 똑같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넉넉히 수용하게 된다면 대인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유익은 대인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을 더 알아가

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갈등과 아픔의 유익이 된다.

우리는 많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비난하거나,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알코올 등의 스트레스 해소 통로에 의지한다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관계는 나를 알아가고, 상대를 알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고통 가운데 숙달하고 습득하는 인격적 성품들이 있다. 인내, 용서, 용납, 공감 등등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인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도 인내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가르친다. 우리는 가정과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참는 것의 가치를 연습한다. 인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빛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처음 부부 싸움을 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 씹씩거리지만 그나마 연습 되었던 인내로 겨우 화를 눌러놓는다. 그리고 부부 싸움의 경험이 쌓이면 서 어떻게 더 인내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조금씩 습득한다. 인내는 갑작스런 파국을 막아내는 성품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우 부족하게 습득된 품성이 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용서’, ‘용납’ 등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용서, 용납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 보인다. 어린 시절 보았던 영화에서 가장 통쾌했던 주제와 내용은 용서

나 화해보다 복수와 징벌 등이다. 자연스럽게 복수나 징벌 등의 인식이 주입된다고 볼 수 있다. 용서와 화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場)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용서와 용납, 화해의 품성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나에게 용서의 품성이 습득되어 있는가?’, ‘용서를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나는 용서와 용납의 경험을 가져보았는가?’ 등을 자문해보면 자신에게 용서라는 품성이 갖추어졌는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용서와 용납 등은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다. 고통스럽겠지만 부부 싸움을 기억해보자. 배우자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 놓았던 자신과 배우자의 모습이 기억날 것이다. 많은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자신에게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고백한다. 상냥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평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부부 갈등에서 드러난다. 화내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평생 들어보지 못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 물론 다룰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부부 싸움 이후 어떻게 화해하느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심한 부부 갈등 후에 어떻게 서로 용서하느냐이다. 인내는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참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인내의 꼭지점에서 감정이 폭

발하고, 서로 세상이 무너진 듯한 부부 갈등을 경험한 후에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깨어진 후에 용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무척 어렵다. 용서의 품성을 충분히 습득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습득되어 있지 않은 성품을 관계속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하고 서로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가 부족한 성품을 연습해 가는 미숙함이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용납해줄 필요가 있다. 결혼이 축복인 것은 용서의 성품을 뿔속 깊이 습득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는 때로 최상의 기쁨을 주지만, 간혹 갈등 속에 빠졌을 때는 최악의 고통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 상황에서 다시 받아주고, 다시 서로 이해하게 하는 성품이 용서와 용납이다. 물론, 용서는 서로 강요할 수 없고 순서와 단계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용서를 습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부부는 용서와 용납을 실천함으로써 관계의 온기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관계다(엡 4:31~32).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 강화교산교회

상상력으로 시작된 교회



“서양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으면 쫓아가서 그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푸른 눈의 선교사가 세례 자원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제물포에서부터 힘든 뱃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너며 달려왔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섬뜩한 경고를 들었다. 협박이었다. 강화의 첫 번째 세례는 이대로 멈추는가? 큰 벽 앞에 섰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물포에서 예수를 알게 된 이승환이 홀로 계신 노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 고향 강화도를 찾았다. 어머니께 말씀을 입어드리고 복음을 전했다. 어머니 역시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자 세례를 청원하였다.

그래서 푸른 눈의 선교사가 강화도에 도착했는데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선교사는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기어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존슨 선교사다. 그렇게 강화의 첫 번째 세례자가 탄생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인하는 큰 믿음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순교의 각오로 나아간 용기가 만들어낸 역사였을까? 둘다 아니다. 당시 필요한 것은 ‘상황을 돌파하는 상상력’이었다. 배에서 내릴 수 없으면 배에서 세례를 주면 되는 일 아니겠는가? 이승환은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강화의 질퍽한 갯벌을 헤치고 선교사가 타고 있는 배에 올라갔다. 그리고 선상 세례가 이루어졌다. 강화의 첫 세례는 선상 세례였다.

바로 그 선상 세례가 강화교산교회와 감리교의 강화선교의 시작이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 ‘상황을 돌파하는 상상력’이 그렇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주변의 반대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잠깐 멈추면서 소나기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직진할 것인가? 어떤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강화교산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런 게 아닐까?

강화교산교회는 선상 세례라는 씨앗으로 시작되었고, 강화도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모판으로 성장했다. 특히 하나님은 선교사의 입도를 강하게 저항했던 김상임을 감화시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강화교산교회는 설립 5년이 되기 전에 교인 스스로 헌금해 예배당을 마련했다. 선교사를 의지하기보다 교회 스스로 성장하고자 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강화교산교회의 담당교역자 중에 선교사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까? 강화교산교회는 강화의 모교회로서 전도인을 파송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등 기꺼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 당시 조선의 어느 교회보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감리교의 신앙 풍토를 조성하는 첫 교회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군인들이 지키는 검문소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강화교산교회가 창립 130주년을 맞이했다. 1960년대 네 번째 예배당이자 초대교회 공로자 ‘김상임 전도사 기념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석조예배당이 지금은 ‘강화초대기독교선교역사관’으로 탈바

꿈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 옆에는 1980년대 어느 집사님의 기증으로 세워진 종탑이 있다. 휘감은 넝쿨이 교회가 견뎌낸 그 긴 세월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강화초대기독교선교역사관은 강화교산교회의 초대 3인(존슨 선교사, 이승환, 김상임)의 부조부터 양 벽면에 교산교회, 강화초대교회의 이야기까지 알차게 담고 있다. 중앙에는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인형들이 있다. 소소하게 체험공간도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 이곳이 예배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돋보인다.

느린 걸음으로 전시된 글씨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돌파하는 상상력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서 오늘까지 왔는지를 깊이 묵상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상상력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나서 교회를 나왔다.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루트 대표)

두란노 신간

창조의 왜곡이 구속사의 왜곡으로!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
노희성 저 | 두란노 | 16,000원

미래의 모든 사건이 발생할 것을 말한다. 그로써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사실의 연속이 ‘구속사’를 의미함을 알게 되었다. 사실의 출발점은 창조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왜곡은 구속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저자의 말처럼 창조의 왜곡은 구속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다음세대가 배우는 진화론이 창조를 왜곡하고 있다. 더는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맡겨둘 수 없다. 교회와 가정에서 지금 학교 교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세대에게 제대로 된 정체성을 심어 줘야 한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창조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은 성도,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및 성경적 답변을 얻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진화론이 언제부터 국민의 상식이 되었을까?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내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교과서에 진화론이 수록되었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진실이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진화론이 온 국민의 보편적 상식이 되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크리스천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는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이다. 지구 과학을 전공한 교사 출신 저자가 교과서의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과 논증으로 반박한다. 이 책은 창조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상의 지식을 성경적 시각으로 풀어나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창조를 정돈하고 가르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하게 할 때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과거의 모든 사건이 발생했음을 증언한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보고싶습니다 장로님!

세상의 소금과 빛 김영길 장로



故 김영길 장로

“배워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었던 김영길 장로가 남긴 유산이다. 1995년 3월 7일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위해 한동대학교가 세워졌다. 김영길 장로는 한동대학교 초대총장(1995년 2월~2014년 1월)으로 섬겼다. 그는 생전 한동대학교는 여러 대학 중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대학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와 한동대학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길을 걸었다. 김영길 장로는 “영성 위에 지식을 쌓아 지식을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하자”면서 학생들에게 “배워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가치를 심어줬다.

운동장은 흙밭, 건물은 1동에 불과했지만, 한동대학교와 학생들은 김영길 장로의 섬김과 리더십을 자양분 삼아 성장했다. 김영길 장로는 총장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학생들을 지지하고 지원했다.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은 김영길 총장을 “고향의 부모님 같다”고 기억하고 있다. 김영길 장로는 한동대학교 총장 재임 당시 고소 고발에 휘말려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한동대학교와 한동대학교의 교육 가치를 지켜냈다. 김영길 장로가 2013년 12월 11일 한동대학교에서 드린 마지막 채플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에 학문적인 탁월성과 깊은 영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동대학교는 돈도 없고, 튼튼한 기반 기업도 없고, 역사와 전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지만 늘 답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고민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노심초사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의 대학을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교수, 학생, 동문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대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김영길 장로는 2019년 6월 30일 향년 81세로 소천했다. 한동대학교가 배출한 1만여 명의 크리스천들은 세계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김영길 장로의 소망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제2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 수상

장애인 화가 곽선양 작가 금상, 김양우 작가 장려상

‘커뮤니티 스토어 3호점과 함께하
는 제2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
모전’에서 복서울 장애인보호작업
시설(前 번동코이노니아) 소속 장애
인 화가 2명이 수상했다. 곽선양 작
가가 금상, 김양우 작가가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 6월 28일 스타벅스 코리아 본
사에서 제2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본상 수상자(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5명)와 가족, 스타벅
스 코리아, 하트-하트재단,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상을 수상한 곽선양 작가는 “그
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다”면서 “
앞으로도 행복하게 좋은 그림을 많
이 그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제2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에서 복서울 장애인보호작업시설(前 번동코이노니아) 소속 장애인 화가 곽선양 작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금상을 수상했다.

밝혔다.

한편 7월부터 온누리복지재단 산
하시설 ‘번동코이노니아’와 ‘청파
노인복지센터’ 이름이 변경됐다. 번
동코이노니아는 ‘복서울 장애인보

호작업시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
청파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꿨
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내
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
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
으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
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
유’,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
유’, ‘관계회로와 감사 나누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용서
,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의
회복’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
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수강
신청은 7월 15일까지 아이스쿨
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6330-7634

알콩달콩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알콩달
콩부부학교’ 본부 13기 참가자
를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24
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평
창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다.

알콩달콩부부학교는 부부의
‘하나 됨’을 위해 건강한 떠남,
성경적 가치관, 부부의 성, 대화
법, 재정관리, 자녀양육에 대하
여 배우고 고민하는 프로그램
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
교 홈페이지(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피당 60만
원(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회
비 포함).

문의: 02-2182-9110

양지 금요성령집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금 오후 9시

양지온누리교회에서 ‘회복케 하
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금요성령집
회를 개최한다. 7월 8일부터 8월 12
일까지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양지온누리교회 시안홀에서 진
행된다.

금요성령집회 ‘회복케 하시는 하
나님’에서는 7월 8일 박종길 목사
(서빙고온누리교회), 15일 방선기
목사(불어예배), 22일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29일 이기훈 목
사(사회선교본부장), 8월 5일 김재
석 목사(예배본부장), 12일 김소리
목사(수원온누리교회)가 설교한다.
예배와 은혜, 인성과 일상의 회복을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가 끝나고 Acts29비전
빌리지에서 숙박을 원하는 성도들
은 예약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031-331-8193

온누리가 함께 만드는 온누리신문!

여름사역 간증 및 말씀해설, 중보기도 제목 모집

온누리가 함께 온누리신문을 만
든다. 온누리신문에서 2022 여름사
역 간증 및 사진과 ‘말씀과 기도’
지면에 실을 말씀해설 및 중보기도
제목을 모집한다.

2022 여름사역 간증 및 사진 모집
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여름
아웃리치, 차세대 여름캠프 등에서
받은 은혜를 담은 글과 사진을 이메일
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실어준다. 원고량은 A4용지 1장(10
포인트) 내외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온누리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말
씀을 쉽게 해설해주고, 한 주 큐티
본문을 미리 공부하고,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장(場)이다. 평
소 궁금했던 말씀 해설과 긴급한 중
보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은 이메일
로 신청하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
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
께 보내야 한다. 긴급한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이메일: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우크라이나 난민 수술비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고려인 출신
우크라이나 난민 스베틀라나 최 여
사의 발가락 수술비를 지원했다. 스
베틀라나 최 여사는 당뇨 합병증으
로 피난 중에 발가락 절단 수술을
했다. 수술 부위 회복이 더뎠다. 국내
에 입국 이후 안양샘병원에서 치료
를 받다 지난 6월 25일 퇴원했다.

스베틀라나 최 여사는 “치료와 회
복 과정에 도움을 주신 NGO 더멋
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
로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우크라
이나 난민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온누리M센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참석

다문화가정 어린이 35명,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11명

온누리M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어
린이 35명과 남양주M센터에서 지
원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11
명이 지난 6월 19일(일) 대통령실 이
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참석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
린 행사에서는 군악대 연주, 전통 무
예 시범, 투호, 굴렁쇠 놀이, 임영주
(팜페라 테너) 축하 공연 등이 이어
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간 특

별기여자 어린이들이 쓴 편지를 읽
고 “우리 국민들이 아프간 특별기여
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꽃꽂하게
클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당부했
다.

이광수 선교사(온누리M센터)는 “
대통령의 당부처럼 이 나라에 온 다
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
라도록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응원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7월 8일 온라인 설명회 실시

2022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
가자를 모집한다. 청년벤처포럼 어!
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법인 설
립 3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비영리 법인이 지원할 수
있다. 팀 핵심 멤버 1명은 기독교인
이어야 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네이버
공식블로그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
려받아 7월 8일부터 8월 1일 오후 2
시까지 지원하면 된다. 심사 및 선

발, 오리엔테이션, 리더 멘토링, 중
간 워크숍 등을 거쳐 12월 3일 최종
결선을 할 예정이다. 수상팀에는 총
상금 3천만 원과 장학금 등이 지원
된다. 참가팀에게는 후원사 운용, 임
팩트 펀드, 밀착 멘토링 등의 혜택
을 제공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
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월 8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설
명회에서 들을 수
있다. QR코드로 7
월 6일까지 신청하
면 된다.



한동대학교 차세대 비전특강

7월 3일과 10일 온누리교회 차세대 대상

한동대학교가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대상으로 비전특강, 입학설명회,
입학상담을 한다.

비전특강은 7월 3일 오전 9시 서빙고 경찬홀, 김완진 교수, 두란노홀
주재원 교수, 믿음홀 정모니카 교수, 오전 11시 30분 경찬홀 김완진 교수
강의한다. 양재 기쁨홀에서 7월 3일 오전 9시 마민호 교수, 하용조기념
홀에서 김재호 교수가 특강한다. 남양주 기쁨홀 7월 3일 오전 9시와 11
시 30분 이정민 교수, 강동 사랑홀 오전 9시 30분 송인호 교수, 도곡 기쁨
홀에서는 오전 9시 김기호 교수 특강한다. 수원 기쁨홀에서는 7월 10일
오전 9시 기쁨홀에서 곽진환 교수, 믿음홀에서 신성만 교수, 오전 11시
30분 비전홀에서 곽진환 교수 강의한다.

한동대학교 입학설명회는 7월 9일(토) 오후 2시 양재 기쁨홀, 입학상
담은 7월 10일(일) 서빙고 1층 로비와 양재 2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문의: 054-260-180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50기 일대일 양육 코칭스쿨’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기 일대일 양육 코칭스쿨’ 세
미나가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
지 6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
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대
일제자양육의 핵심 이론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교회에 적용하는 실제
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이기훈(사회
선교본부장), 신동식(평택온누리교
회 담당), 노희태(차세대사역본부
장), 김한원 목사(빛과소금교회 담

임)가 일대일제자양육의 목회 적용,
일대일제자양육 접목 사례 및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일대일제자양육 프로그램을 교회
에 도입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양육
자, 일대일제자양육을 훈련받기 원
하는 평신도 리더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회비는 15만 원. 8월 15
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
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 세례 간증



/ 김태민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녹아지고, 낮아지고, 내어주며

어린 시절 나는 ‘착하다’, ‘품행이 방정하다’ 등의 칭찬을 많이 들었다. 모범어린이상을 줄곧 받던 소년이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은 벚꽃이 유명한 진해라는 작은 도시였기에 욕심과 경쟁 없이 유년시절을 보냈다. 비록 가정 환경은 여유롭지 못했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매주 주말 독거 노인 도시락 봉사와 여름철에는 몽골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의지하며 가까이 시간과 마음을 남을 돕는 데 쓰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작은 감자 하나를 얻어도 절반을 나눠줄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학생이 되었다. 룸메이트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다.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나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군대 제대를 하고 용기 내어 학교 근처 교회에 갔다. 믿음이 생기리라 생각하고 매주 일요일 아침 빠지지 않고 다녔다. 어느 여름날, 서둘러 교회로 향하는 길에 늘 그 주변에서 폐지를 주우시던 할머니가 지나가는 차에 놀라 손수레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를 도와 손수레를 바로 세우고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았다. 같은 교회를 다니

던 다른 학과 친구들이 지나갔는데 그들은 할머니와 나를 그냥 지나쳤다. 나는 그날 할머니를 도와 드리고 주어진 300원을 받아 들고 교회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 친구들이 마냥 원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사람들의 착함 정도를 비교하는 삶을 살았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채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가 극성이던 어느 날, 아내 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박소희 자매와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 지난해 10월 첫걸음 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새해 예배에 참석하면서 네팔에서 사역 중인 김일환 선교사님의 영상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이 자연스레 열렸다. 한없이 약한 존재인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삶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순식간 일어난 일이라 놀라웠다.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다. 반대편 길로 너무 멀리 와버린 나에게도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녹아지고, 낮아지고, 내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 무릎선교기도학교 수료 간증



/ 박수진 성도(여의도공동체)

무릎 기도로 배운 네 가지

무릎선교기도학교에 참석하기 전에 내 기도는 나와 가족, 교회의 지체와 지인을 위한 기도며 머물러 있었다. 7년 전 암을 진단 받고 3번의 수술과 2년여를 치료받으며 건강회복과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과 신앙서적, 설교 등을 가까이하고 사모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성경을 읽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렸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되었기에 무릎선교기도학교를 참가신청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변화되었다. 첫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얼마 전 부르키나파소의 서혜경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신 교회 450개를 세우고, 오지의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을 파시고, 신학생을 돕고, 오지에 세운 초등학교에서 전국 1등이 나오고, 무당 아들이 회심한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둘째, 작은 예수님을 보고 배웠다. 선교사님께서 가난하고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다. 선교사님이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고 작은 예수님처럼 느껴졌다.

셋째, 내가 바로 복음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회개했다. 값을 길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배고픔과 필요를 채우고, 병을 치료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에서 나를 보았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참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섬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넷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를 배웠다. 인도네시아 남경수 선교사님이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을 어디서 얻는지를 듣고 빵을 얻은 거지였다. 배부르게 되었으니 겸손과 진실함으로 생명의 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 유아세례 간증



/ 부 이용희, 모 방계정, 자녀 이재겸

귀한 선물 재검이!

아내와 나는 2019년 초 회사 상사의 소개로 만났다. 4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던 시기였지만, 첫 만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을 나누며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갔다. 양가 부모님은 우리가 늦은 나이에 만났으니까 오랜 연애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다. 우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다. 그리고 우리는 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다. 생각보다 쉽게 아이를 가져서 어리둥절했지만, 아이를 계획하고도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부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재검사했는데 유산하고 말았다.

우리 부부가 첫 번째 겪은 예상치 못한 아픔이었다. 우리 부부는 큰 상실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예민해지고 잦은 다툼이 생겼다. 8개월 후에 다시 새 생명이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은 힘차게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셨다. 우리 부부는 심장이 쿵쿵쿵 잘 뛰는 아이의 태명을 ‘심쿵’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태교했다. 감사하게도 아이는 입덧 한번 없이 잘 자라 주었다. 아내는 자연 분만으로 4.16kg의 건강한 심쿵이를 출산했다.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6~7).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을 새기고자 아이의 이름을 ‘재겸’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귀한 선물로 맡겨주신 재겸이를 세상의 기준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양육하고 싶다.

■ 순장사관학교



/ 이석규 성도(김포공동체)

복음은 나의 아바 아버지이시다!

어렸을 때 사업하시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자란 기억이 있다. 할머니는 언제나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다. 친구들과 뛰놀기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이민을 해서도 지역교회에서 부모님과 가족 같은 교회 집사님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정환경이 점점 나빠졌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학원사업을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다시 가정을 일으키겠다는 집념으로 살았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혼생활에도 위기가 왔었다.

어느 주일 설교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는 조상들이나 이전 시대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나를 찔렀다. ‘나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가득했다. 남에게 사랑받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방법도 잘 몰랐다. 당연히 남을 위한 기도도 흥미가 없었고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었다. 내면에는 자존심과 물질에 관한 생각뿐이었다.

순장사관학교에서 내가 지나온 일과 상처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리더님과 순장님들의 눈물에 무장해제 되면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았다. 내가 속한 순에 암 투병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다.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다. 성령님은 권사님을 통해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슬프지 않았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권사님과 순장님, 리더님을 붙여 주셨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다.

“석규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아들, 미안하고 사랑한다. 교회를 잘 다녀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아바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버지를 천국에서 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장로칼럼

‘달려라풍당’ 챌린지의 기적



김정훈 장로
(달려라풍당
준비위원장)

미국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3개월 동안 체중 5kg을 감량한 적이 있다. 한국에 와 서도 꾸준히 자전거를 탔다. 3년 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나의 일상 이 됐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일상은 자 전거를 즐겨 타시는 목사님들과의 교제로 이 어졌다.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집사님 이 ‘자전거를 타면서 CGNTV를 좀자’ 고 제안 했다. 다음세대를 위한 ‘달려라풍당’ 챌린지 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난해 3월, 제1회 ‘달려라풍당’ 챌린지를 준비하던 때였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폐쇄 된 삶을 살고 있었고, 모든 행사가 취소돼 모 이는 게 쉽지 않았다.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관심을 가질만하고, CGNTV에 도움이 될 일을 찾 도록 감동을 주셨다.

때마침 CGNTV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독교 OTT ‘풍당’ 을 출시하면서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 는 기독교 OTT 플랫폼으로써의 ‘풍당’ 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급선무였다. 후원금액과 상관없이 온누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OTT ‘풍당’ 을 전달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문을 닫았다. 온라인(Zoom)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

도 많았다. 온누리교회가 나서서 도움의 손길 을 내미는 교회를 돕는 일은 아마도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바라시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과 같을 것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모임 수 없어서 거의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만, ‘달려라풍당’ 챌린지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운동하는 캠페인으로 준비했다. 오히려 성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두름 덕분에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제1회 ‘달려라 풍당’ 챌린지를 개최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목표했던 1천 명의 2배가 훨씬 넘는 2,600 명이 참가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달려라풍당 챌린지는 또 다른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 1회 때와 달리 코로나19가 주춤해져서 캠퍼스 온누리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그 덕분에 올해는 4,527명이나 참가했다. 이제는 명실상부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로도 하듯 캠퍼스 교회 한 곳은 성도 절반 이상이 참가하는 기록 을 세우기도 했다. 또 제2회 ‘달려라풍당’ 챌린지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았다. ‘달려라풍당’ 챌린지가 가족공동체의 소통과 사랑을 나누는 장(場)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기독교 OTT ‘풍당’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필수 앱이 될 것을 확신한다. CGNTV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달려라풍당’ 챌린지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운영위원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목사님들,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주신 CGNTV의 임직원, 그리고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가한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권사칼럼

내 기도의 골방에서도...



서은희 권사
(광명공동체)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지 못했다. 내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 정확하게 말 하면 집회 때나 특별한 모임에서는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예배와 모임이 끝나면 차츰 기도의 줄을 놓을 때가 많았다.

나는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를 넓히지 못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들을 가깝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사실 나랏일에도 별반 관심이 없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TV를 보시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영향이 있는 듯하다. 또 교회와 세상은 별개라는 이분법적인 설교를 듣고 자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정치는 세상일이라는 사고 체계가 형성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다. 일선에서 삶을 통해 사역하시는 목사님, 변호사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 교육, 문화, 선교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한 사람의 결단과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조선 땅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시점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성도들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직후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얼 굴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열매 맺었음을 보면서 감사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온라인(Zoom)으로 여러 선교사님을 만났다. 선교사님들이 들려주신 선교사역과 기도제목을 놓고 연합기도팀과 합심해서 기도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이 느껴졌다.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세상의 일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알게 되면서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었다. “기도는 아는 만큼 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마리아행전 기도모임과 무릎선교기도학교 연합기도팀 덕분에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들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알고 지낸 나의 주변 사람들처럼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제 내 기도의 골방에서도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사님들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흘러나온다. 내 입술에 잠깐 머무는 기도가 아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친구를 위한 기도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모든 인류를 생각할 때 생일(生日)은 365 일을 꼭 채우고 있다. 누군가에게 1년 열두 달 365일 중에서 하루만큼은 이 땅에 처음 등장한 순간을 인생의 추억으로 새겨놓고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날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류가 생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날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생일이 특별한 이유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일은 모태 중에 얻게 된 생명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게

된 날이라는 의미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어야 한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이가 있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기쁨과 감동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한다. 오늘을 놓치면 또 364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 아래서 에스더, 모르드개와 함께 그 시대를 살던 유다 사람들에게 죽음의 멸망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제비뽑기를 의미하는 ‘부르’라는 페르시아어를 통해서 유다멸족(滅族)의 날이 정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 ‘부르’라는 단어는 끔찍한 단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반전(反轉)의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저주의 부르’가 ‘생명의 부르’가 되었다. 유다 민족을 향했던 잔혹한 칼날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하만과 그의 가문을 향한 비수가 되었다.

생일(生日)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에 9:22, 26a).

부림절로 지키는 이틀 동안은 유다 사람들에게 생명이 회복된 날이었다. 유다 민족 모두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었다. 유다 사람들의 감격의 절기인 부림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날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생명의 떡(요 6:35, 48)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한 날을 말하며, 그날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누리는 모든 생명의 날들을 말한다. 바로 지금이 새 생명이

회복된 날이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의 창조 역사 이후로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에스더는 어릴 적 고아였을 때나 왕비가 되었을 때나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며 단호해졌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모르드개도 에스더의 사촌오빠였을 때나 에스더의 양아버지가 됐을 때나 왕에게 높임을 받으며 인정을 받았을 때나 하만의 위협을 받으며 민족을 위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했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다. 이 사명과 호흡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 기뻐하며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안전관리위원회가 제안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철 야외활동 안전 관련 주의사항

여름은 외부활동이 늘고, 고온다습한 데다 자연재해가 잦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계절이다. 교회에서 계획한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마무리하려면 기도로 준비하고, 위험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주셨다. 성경에는 건축, 통행, 질병, 식품안전 등에 관한 매뉴얼이 율법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성경은 백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안전매뉴얼’인 셈이다. 이번 여름 야외활동할 때 숙지해야 할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1. 감염병 예방

1) 코로나19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소멸한 상태는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 및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생활화하고, 실내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 및 감염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의 면역력 저하가 예상되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 손 씻기 생활화
- 기침 예절 실천
- 올바른 마스크 착용
- 물놀이 여분의 마스크 준비
- 다중이용시설 에어컨 및 선풍기 바람 직·근접 지양
- 이상 증세 있으면 신속한 검사 및 외부 접촉 자제

2)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이 있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 미국질병청(CDC)에 따르면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 상처 및 점막에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된다. 원숭이두창의 특징은 코로나19에 비해 전염력은 낮지만, 잠복기가 길고(최대 21일),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부 발진 등이다. 발진은 발열 이후 1~3일 이내 시작하고, 머리부터 시작해 전신으로 퍼진다. 항공기나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수영장 등 이용자 밀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원숭이두창 감염 예방수칙

- 감염 환자 및 의심자 직·간접적 접촉 금지
- 감염 의심자 접촉 물품 사용 금지
- 손 씻기 및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생활화
- 원숭이두창 유행지역 여행 자제
- 발생 우려 지역에서 매개 의심 동물 접촉 지양

2. 여름철 질병 예방

1) 식중독

여름철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식중독이다.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소화기가 감염되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식중독은 주로 식품에 들어 있는 미생물이 생산한 독소, 동식물 자체에 내재한 독소, 화학 물질에 의한 중독, 세균에 의한 감염 등으로 발생한다. 식중독균에 감염되면 복통과 설사, 고열, 어지럼증 등이 수반되어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된다.

식중독 예방수칙

- 지하수 끓여 먹기
- 조리 및 섭취 전 손 씻기 등 청결 관리
- 육류, 해산물 등 생식 금지
- 야생 채취 버섯 및 열매 섭취 지양
-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안전 보관
- 상온에 3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물 폐기
- 신선한 식재료 선택 사용
- 식품 조리 전 사용 기구 세척 및 소독
- 육류, 해산물 칼/도마 구분 사용
-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 식재료 폐기
- 위생상태 검증된 식당 이용

2) 고체온증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우리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쉽다. 고체온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상 증세다. 단계별로 증세 차이가 있다. 불볕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경련’이 발생한다. 근육에 쥐가 나는 것 같은 통증이 팔과 다리 등에 나타난다. 정도가 더 심해지면 ‘열피로 현상’을 보인다. 무더위로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몸이 무기력해지는데, 갈증이 심하고 어지러우며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가 지나 땀이 계속 나고 맥박이 빨라지면 위험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가 바로 ‘열사병’이다. 상태가 심하면 체온이 39℃ 이상 오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열경련과 열피로 단계는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진정되지만, 열사병의 경우는 응급조치 이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고체온증 예방수칙

- 물을 자주 마셔서 충분한 수분공급
- 직사광선에 노출 시간 최소화
- 충분한 휴식 및 체온 유지를 위한 샤워
- 제철 과일 충분한 섭취로 영양 보충
- 공기소통 잘 되는 편한 옷 착용하고 외출하기

- 불가피한 외부 활동을 할 때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 폭염주의보 등 기상특보 숙지
- 카페인/알코올 음료 자제, 미네랄/염분 섭취

3. 야외 활동 주의사항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 등지에서 활동할 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 상황이 단순한 헤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사고로 이어진다. 돌발상황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소홀하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지 사정에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길을 잃거나 고립될 수 있고,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여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진드기 등에 물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야외활동 사고 예방수칙

- 어두워지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복귀
- 인적 드문 휴대전화 불통 지역 진입 자제
- 해안 갯벌이나 섬을 방문할 때 만조시간 숙지
- 계곡에서는 국지성 강우 대비 범람 가능성 대비
- 뱀에 물린 부위에서 5~10cm 떨어진 곳을 끈으로 묶고 병원 이송
- 벌떼의 공격을 받으면 머리 감싸고 30m 이동, 곤충용 퇴치 스프레이 사용 방어
-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 제거하고, 항히스타민제 복용 및 병원 치료
- 쓰쓰가무시병 등 유행지역에서는 야외 노출 행동 자제

4. 장마 및 홍수

장마로 누적 강수량이 많거나 집중 호우가 내리면 저지대 주택 등이 침수되거나 하천 제방이나 도로가 유실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사태나 범람 등으로 재산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도시는 침수와 함께 감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마 및 홍수 사고 예방수칙

- 폭우로 침수가 예상될 때 누전 차단기를 작동해서 전기 공급 차단
- 손이 젖은 경우 고무장갑 등 활용해서 전기 공급 차단
- 침수 때 가로등, 교통 신호 제어함 등 공공 전기 설비 접근 금지
- 과거 침수로 고립 이력이 있는 지역 진입 자제
- 도로유실 위험이 있는 산복도로 및 제방 도로 통행 자제
- 차륜이 2/3 이상 물에 잠긴 도로 구간 진입 금지

5. 여름철 차량 이용

여름철에는 교통사고 외에 차량 관련 주의사

항이 있다. 차량 실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차 안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어린이나 애완동물 등을 홀로 차내에 머물게 하면 질식사 위험이 크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운전 피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여름철 차량 안전을 위한 예방수칙

- 휘발성 액체나 기체가 담긴 제품 차내 방치 금지
- 엔진 공회전 상태로 장시간 에어컨 가동 금지(1시간 이상)
- 노후 차량의 경우 배선계통 등 사전 점검하고 사용
- 노상 및 외부공간 주차 때 창문 일부 개방
- 에어컨 가동하고 밀폐된 차량에서 수면 금지
- 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노후도 점검(차량검사증, 타이어 마모 등)
- 장거리 운전할 때 2시간마다 휴식

6. 해외출입국

이번 여름에는 해외 아웃리치 등 봉사활동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보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변경된 출입국 관련 내용과 해외안전 정보를 숙지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해야 한다.

해외출입국 안전 예방수칙

- 여행 대상국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요구 기준 확인
- 전염병 창궐 및 감염 우려 지역 방문 자제
- 현지 의료실정 파악하고 필수 의약품 등 사전 확보
- 말라리아 예방 접종 등 방역 관련 필요를 사전에 확인 및 준비
- 테러위험, 분쟁지역 등 여행경보단계 사전 숙지 이후 이동 경로 설정
- 방문지 기상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복장 준비
- 격오지 등 협지 이동할 때 비상연락망 유지
- 도난 및 강도 대비 개별이동 지양, 귀중품 분산 보관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내외의 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아웃리치 등 단체 외부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관리분과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 섬긴다. 부디 여름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서 은혜로운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

/ 박용훈 팀장(서빙고 안전관리위원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종교인의 반발

홍해의 기적을 보고, 광야를 지날 때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격

세 번째 반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5~6절).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불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왜 불의를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는데 자신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라고 주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면, 누군가 배신해야 했다면, 친구의 배신이 구약에 약속되었다면 그 말씀이 성취된 통로가 가룟 유대인데 왜 그를 정죄하느냐?”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친구에 의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면 누군가 배신해야 하고, 누군가 못 박아야 하고, 누군가 사형을 판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는 데 쓰임 받은 사람들을 왜 정죄하느냐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씀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으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고 왜곡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종교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

네 번째 반발은 유대인들의 불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음으로 도리어 많은 이방인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불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7~8절). 같은 맥락의 논리입니다. 나의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하나님 영광에 기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면 내 악이 하나님께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을 심판하십니까?”라는 논리로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악 자체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 해괴망측한 논리를 반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것은 되도록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배제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라는 유대인들의 반발에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8절).

사도 바울은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런 논리로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면, 죄가 은혜를 더하는데 쓰임 받았다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라는 말이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빚을 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교회에 나와 줬고, 예수님을 믿어줬고, 신앙생활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스스로 포장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심판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속에 반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종교성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과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쌓아왔던 종교적인 울타리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종교라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 받아 마땅합니다”라는 첫 번째 진리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이성희 관장
(서초구립중앙노인
종합복지관)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온누리복지재단이 2018년 7월부터 서초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섬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가 끼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엡 2:13~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것처럼,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빈부 간 막힌 담, 세대 간 막힌 담, 생애에 막힌 담을 허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절대빈곤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주는 쑥쑥한 마음의 담벼락에 엔젤트리에 참여한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내었다. 결실하는 독거 노인에게 ‘시니어레스토랑’이라는 품격 있는 한 끼 무료급식서비스가 급식 그 이상의 만찬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과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세대 간 막힌 담을 1, 2, 3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더 하모니’ 합창페스티벌로 허물고 있다. 어린이와 함께 가꾸는 텃밭 활동은 세대공존의 좋은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년기는 생애발달과업에서 통합성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러나 세상의 담벼락에는 결핍과 원망과 영적 고갈이 적시되어 있다. 자칫 담벼락에 갇히기 쉬운 노년기에 생애의 막힌 담을 허물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지관은 각종 프로그램 안에 빛과 소금을 녹여내어 노인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영적 안정감을 느끼고, 천국 소망에 이르도록 섬기고 있다. 요즘 웨어러블기기, 스마트케어, 인공지능

로봇, VR 등이 혼한 용어가 되었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스마트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며 다양한 스마트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령사회일수록 ‘가르치거나 배우거나’라는 신념 아래서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온 결과이다. 인바디 밴드(체지방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서 운동한 어느 어르신은 “체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려주니까 운동할 맛이 난다”며 스마트 적응력을 즐거워하셨다.

어르신들은 배우기만 하지 않는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어르신 재능기부단(서초골든클럽)에 참여해 건강, 문학, 예술,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모임 ‘필(必)환경봉사단’과 무료급식 배식보조를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나눔봉사단’ 등에 어르신 대부분이 동참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복지관이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사랑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교대역 인근에 있다. 각종 법무, 세무 관련 사무소가 즐비하다. 율법과 탈법, 고소와 변증의 논리가 가득한 지역사회이다. 권리의식과 자본주의가 풍부한 것과 비교해 사랑과 섬김, 용서와 은혜의 정서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곳이다. 사도 바울이 헬라지역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문명도시였던 고린도에 사랑의 서신서를 띄워야 했던 것처럼, 강남한복판에 소재한 복지관이기에 사랑의 후원과 자원봉사의 물결이 더욱 필요하다. 자칫 바벨탑을 쌓는 교만의 위험성을 깨트리고, 진정한 사랑의 복지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릎 기도가 절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생의 자람이 아니라 창조적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서초라는 지명의 뜻은 ‘서리풀’이다. 서리풀(蓊)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 충만한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 되기를 꿈꾼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중보기도를 소망한다. 문의: 02-3474-6080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8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일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다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내척치유학교

일정: 7월 22일~30일 매주 금,토

시간: 오후 3시~9시

장소: 온라인

신청: 아이스쿨

회비: 6만 원

문의: 010-6330-7634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웹퍼블리셔, 웹/앱 서비스 기획자 각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02. 573. 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임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지부 162기

지원자 모집

일시: 8월 6일~9월 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9월 3일 5주 차 수료예식(양재온누

리교회 화평홀)

강의: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접수: www.father.or.kr, 아이스쿨

문의: 02-2182-915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 322. 9686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신학하는 요즘 애들



7월 3일 주일 '풍당' 선공개

방송시간 | 7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내레이션 | 배우 임지규